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11.

발 의 자 : 한병도 · 신영대 · 조 국
김윤덕 · 이해식 · 임오경
장철민 · 전진숙 · 진선미
윤준병 · 이원택 · 강유정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치가 불가하고,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,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,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3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3제1항제1호 중 “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”을 “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,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,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p>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 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이하 “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”이라 한다)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
<p>1.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,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</p>	<p>1. -----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,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,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</p>
<p>2. ~ 10. (생략) <신설></p> <p>② ~ ⑬ (생략)</p>	<p>2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 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</p> <p>② ~ ⑬ (현행과 같음)</p>